



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와 시사점

채원영 연구원

- JP Morgan이 발표한 11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53.2로 2011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중국 등 신흥국의 제조업 지수 회복속도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 - 미국 PMI는 최근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유로존 PMI도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제조업 경기가 확장국면에 머물고 있음.
 - 중국 제조업도 지난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국면에 머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완만하며 제조업 경기 전망은 다소 부정적임.

- 미국 제조업 경기는 대외 수요 및 주택 관련 수요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일본 제조업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.
 - 11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주택시장 회복과 해외수요 증가 등으로 10월 56.4에서 11월 57.3을 기록하였으며 11월 제조업 PMI도 전월 51.8대비 2.9포인트 상승한 54.7을 기록함.
 - 11월 ISM 제조업 지수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신규주문지수는 10월 60.6에서 상승한 63.6을 기록하였으며, 생산지수는 전월 60.8대비 2.0포인트 상승한 62.8을 기록하였고 고용지수는 전월 53.2대비 3.3포인트 상승한 56.5를 기록함.
 - 일본의 11월 단간지수도 10월 12에서 2포인트 상승한 14를 기록하였으며 PMI도 55.1을 기록하며 4년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음.
 - 이는 아베노믹스 시행에 따른 엔저 효과로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임.

- 유로존 제조업 경기도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음.
 - 11월 유로존 제조업 PMI는 51.6으로 5개월 연속 50을 상회하고 있음.
 - 이코노미스트 Williamson은 유로존 제조업은 2년 반 만에 가장 호황이나 성장세는 약한 수준

으로 독일,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 등은 강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프랑스, 스페인 등 남유럽 지표는 부진하다고 평가함.

- 11월 독일 제조업 PMI는 52.7을 기록하여 최근 2년 내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였으며 이탈리아 제조업 PMI도 2년 내 최고치인 51.4를 나타냄.
- 반면 프랑스 PMI는 48.4를 기록하여 전월 49.1보다 하락하였으며, 스페인도 전월 50.9보다 하락한 48.6을 기록하였음.

■ 반면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전망은 부정적임.

- 중국 국가통계청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는 11월 51.4를 기록하였으며 HSBC가 발표하는 11월 HSBC PMI도 10월 50.9보다 소폭 하락한 50.8을 기록하였으나 7월 47.7을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.
 - Conference Board의 Andrew Polk는 부양책이 집중된 국유기업과 대기업에 한해서 제조업 경기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.
- FT는 중국이 다른 경제권의 제조업에 비해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11월 PMI 신규주문지수가 52.3으로 전월대비 0.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볼 때 향후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평가함.
 - FT는 중국 등 신흥국 제조업 회복세는 유럽과 미국 제조업 회복세에 따라 해외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함.

■ 유럽과 미국 제조업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확대로 중국 등 신흥국의 제조업 회복세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향후 신흥국 제조업 경기 회복세의 경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함.

- 미국 제조업지수 호조로 미국 경기회복 전망이 확대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미 연준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

(Wall Street Journal, FT 등)